잡랩 북스 · 한 권 레이블 No.003

기다림

시 여덟 편 · 잡랩 소장

ZOP LAB · 비매품

차례

1. 기다림
2. 책을 읽는다는 것은
3. 인생처럼 쓰라리다
4. 뱃마음 어부들
5. 음악이 내리는 감동의 시작
6. 바람
7. 나만을 사랑한 그대
8. 빗소리가 들리면

기다림

준비되어 있다하면 온다하고
기다림을 찾으면 올 것이다
한 겨울날 얼어버린 말동무에
따스해진 찬바람의 겨울향연

안개핀 눈꽃사이로 쌓아진
푸드덕 뭉턱한 눈가의 깨어짐이란
한동안 기다려오던 그님들의 벗속에
젖어들어가 녹아내리고 이슬처럼 맑게고인다

추운 비바람 모진 시련들도
이젠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지나가겠지 견디어서 어두커니
내 장황한 순간의 고진 기억들
부석거리는 추위를 타고 흐른들 어찌하리요

빛발하는 유채빛 그림 한 폭의 눈길을
유화물감 뿌리어 진하게 늘어트리면
평백한 초원의 그림들처럼
유사한 얼룩진 그리움을 머금고 운다

웅장한 화폭의 놀라운 색의향연
그것의 초상화란 나를 위해 기다리어

나의 자취를 그려가기에 이 마음
이쁜자태 뽐내어 수를 놓았다

세월속에 묻어나는 삶의 형태를
고요한 화백지에 너울거리고
구름빛 푸른색 담아 넣으면
이 무슨 황홀한 시대의 흔적이랴

한 울림속에 팽창하는
영혼의 무게를
오직 마음속에 간직하길 원하네
나 홀로 기다림에 젖길원하고
유유히 잊혀져가는
천도의 길을 걸어간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권의 책에는 삶이 존재한다
아픔과 사랑을 만들어준다
행복하길 바랬던 순간들이
점점 아파오기를 기다려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한다면
나에게는 책으로 세상을 이해할 것이다
단 한줄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고
영적교감을 통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리라

자유로운 영혼의 순수한 정신을
이 한몸 다 바쳐 써나가리
하늘 아래 정의로운 사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떠받들어라

속박에 얽매여있던 공허함이
고독의 모습으로 나를 덮어주었고
애절한 목소리로 쏟아내어
광음의 깨어짐으로 빛을 발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
연약한 본질의 의미를 알아낸다면
더더욱 갈망하고 애원하는

성숙의 강인함으로 채움이 된다

책을 읽는 즐거움에 깊이를 본다
책을 아는 지혜로 세상을 산다
책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다

인생처럼 쓰라리다

저 보이지않는 어두운 고지여
갈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세월하나 길다하여 흐를지라도
어찌보면 좋은일 아니겠소
이렇게되면 기쁨인 것을

고통스러운 절규가 찾아올지라도
피 한방울 흘리면 어떠하리요
멍에를 뚫어버린 고진상처를
나의 몸마냥 치료하겠다마다
익숙해버린 영광의 흔적을 위해서
참아낸다오 그러하리라

참을수없이 밀려오는 공허와 슬픔이
등골이 서늘해질때처럼 저려오기를
유난히도 오늘과 지난날에 시린이를
뽑아내듯 아파온다면 바라던바라
이놈만큼 견뎌내기란 쉽지않구나

파묻혀있던 고난의 연속들이여
다시 내가 찾아주기를 바라리니
태초에 하늘을 바라보던 감동으로
재한줌으로 남아있을 파란만장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두려움을 집어삼켜 적셔보아
하늘의 희망으로 가득찬 천지의 사모함이
어찌 그리 만만할까 하였달까

인생의 걸음마를 떼어 본다면
높은인생 한없이 보이지않아
태양처럼 뜨겁게 불타올라라

뱃마음 어부들

저녁노을 비추는
아득한 섬마을
그윽한 향기는
그을린 고향길

하루사이 풍랑들은
잔잔히 멈추었고
바닷가로 들려오는
정겨운 뱃고동소리

아 아 저 어딘가로
갈라지듯 들어선
고기잡이 배들어선
어부들의 그물잡이
힘차게 뿌려진다

영차영차 힘차게
끌어올려 당겨보니
어마하게 낚았다오
팔딱팔딱 싱싱한
힘센기운 물고기들

한가득 실어다가

바다냄새 뿌려지면
어부들의 땀방울이
섞여서 스며든다

오랜시간 바다로
출항하고 있으면
요동치던 파도를
나아가던 어부선

거센물살 받아들이며
거칠게 항해하는
선장의 힘든사투

냉정한 바다를
자신의 생활터로
바꾸어 버렸네

어부의 마음은
바다의 모습이다

음악이 내리는 감동의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지만 불완전하고
슬픔이 많아 울고있어라
나는 너와 함께였노라

가지지 못할 이름이 되어
절대로 존재한적이 없었던
지금 이순간 더없이 아오
오려한다오 오길바라오

한순간 끝마침의 내리막
순간들도 지나가거니와 한다
속삭여줄 그대가 품으소서
한가득 담아 모질어진다

강력한 충동의 끝과임을
요동치듯 두들기어도 쏟아고시어
고요한 적막에 물가의 찰싹거림
더디없이 기다려진다

푸른 장막거리에 화사한 막
곧 길게늘어선 흩어진 삶
잘게잘게 조각들이 되어라

오오 선무르고 무릅다고하고늘한다

열정과 희망과 사랑이란
모순의 방법으로 기웃거리다
음악을 흠뻑젖고나서
이 맛 음미할까 좋다

바람

나에게 바람이 있다면
어느것하나 빼먹지않는
그런 바람을 주시오

평화를 원한다면
사랑을 주었고
평온을 원한다면
화평을 드리고
평강을 원한다면
평탄길 내어주리

이것들이 다 그대여
한줄기 빛 찾아온
이름모를 그대가
내게 왔다네

기다림에도 끝이오듯
저 먼길을 헤매고
찾아나선 바쁜이의
애타는 심정은

나는 알겠소
이젠 안다오

영원히 머무를수도
있는 지상의 광원

내어준다면
이어 버릴게요
온종일 불어오는
바람결을 찾으러

떠나는 길
그대곁을 맴돌고는
하염없이 불어오는
외로운 손길인데

보내어 준다면
그대만 준다면
나는 불태워요

그대 마음을

나만을 사랑한 그대

처음처럼 그대곁에
나를 놓아 드린다면
난 당신을 잊지않아요

스스럼없는 당신의
따스한 미소가
나의 눈에서 아른거리네요

서슴없이 다가서면
가까울 그대여
나에게 한없이
뜨거워지세요

만지면 사라질듯한
희미한 뒷모습을
말 없이 바라보았던
한명의 그림자처럼
언제든지 함께하리라

때로는 거울처럼
비춰 보기만 한다면
침묵과 외로움으로
나의 마음을 달랠겁니다

그대는 저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어둠속에서 보일수 있는거라면
나의 마음 어둡게하리
부디 저를 밝혀주소서

빗소리가 들리면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고
하늘이 어두컴컴해질 때
조용한 방안에 누워
빗소리를 듣곤 했었다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데
멈출기미가 안보이고
홀로 눈을 감고 들으면
모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유리창 밖에서 거리를 볼때면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듯했고
새벽잠에 잠들어있는
죽어있는 풍경이었다

나무가 슬피 울고 있다
비오는 날이면 쌀쌀해져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아
반겨줄 시간은 없는 것이다

한동안 꺼져 있는 등불은
오로지 어둡게만 존재하던
마음 한 구석의 식어버린

비와같은 차디찬 눈물처럼
나에겐 소나기가 되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

『**기다림**』
지은이 잡랩 소장
펴낸 곳 잡랩 북스 · 한 권 레이블 No.003
zoplab.co.kr/books
비매품 · 이 책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 ZOP LAB. 지은이의 허락 없이 옮겨 싣지 마세요.